

임창정 “저요? 제일 귀여운 ‘다웃파이어’…매일이 첫 공연같죠”

영화 원작...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
1인2역에 목소리 변조...탭댄스·랩까지

“임창정표 ‘다웃파이어’는 가장 예뻐요. 아담해서 제일 귀엽죠. 다른 두 배우는 덩치가 크잖아요.(웃음)”
만능 엔터테이너 임창정이 코미디 연기로 돌아왔다.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로 10년 만에 오른 무대에서 철부지 가장 ‘다니엘’과 할머니 가정부 ‘다웃파이어’로 1인2역을 오가며 웃음 폭탄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이 맛있는 작품에 제가 톤이 바뀌 하나로 일조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다. 너무 큰 행운”이라고 말했다.

철없는 남편 다니엘이 이혼을 당하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할머니로 변장해 보모로 잠입하는 이중생활을 그린다. 로빈 윌리엄스의 대표작이자 1993년 개봉한 동명 영화가 원작이다. 뮤지컬은 한국 초연이다. 임창정, 정성화, 양준모가 주인공 다니엘을 번갈아 연기한다.

로빈 윌리엄스 팬으로 영화는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출연을 결정하고 공연 실황을 보고선 머뭇하게 됐다.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무대에서 쉴 새 없는 변신과 연기를 소화해야 하는 만큼, 체력적인 걱정이 앞섰다. “사실 해낼 수 있을까, 괜히 민폐가 아닐까 우려했어요. 그래도 용기를 한 번 내봤죠.”

◆다니엘-다웃파이어, 순식간에 변신...
“실수할 땐 공포”

무대에서선 누구보다 바쁘다. 다니엘에서 특

수 마스크와 안경, 가발을 쓰고 바디수트와 치마를 빠르게 갈아입는다. 아슬아슬한 변신 과정에서 대사하고, 노래도 한다. 목소리를 바꿔 다웃파이어로 능청스럽게 연기할 때면 폭소가 터져 나온다.

“목소리 톤은 여러 콘텐츠를 많이 봐서 섞여 있어요. 어느 날은 김수미 선생님, 또 어느 날은 이정섭 선생님이나 (홍)석천이 형 느낌이 나오죠. ‘~했어’라는 억양은 저희 막내를 돌봐주시는 이모님 톤이에요.(웃음)”

탭댄스 등 다양한 춤부터 랩까지 다재다능 끼를 보여준다. 다니엘이 우연히 인형극을 하다가 루프머신으로 비트박스와 랩 하는 장면은 신바람이 난다. “제일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장면”이라며 “해낸 게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인형)복화술을 하며 디제이처럼 기계를 만지고 랩을 해야 하죠. 처음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인형 킨 손으로 하다 보니 자꾸 다른 게 놀려요. 성화는 익숙해지려고 목장갑을 끼고 연습했죠. 녹음해서 리스킹하자고도 했는데, 제작사 대표가 라이브를 고수했어요. 틀려도 되니, 그 맛이 있다고요.”

물론 매일이 마음 같지는 않다. 때로는 옷 지퍼가 고장 나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못할 때도 있다. 상황 하나가 꼬이면 머릿속은 금세 백지가 된다. “하루하루가 첫 공연 같다”는 그는 “30년 넘게 연기를 했는데 지금도 공연 1~2분 전에 떠난다”고 말했다.

“작품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절대 실망을 줄 수 없는 작품이에요. 하

지만 변신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터져 실수하거나 어느 순간 ‘뺨’하고 대사를 잊을 때가 있죠. 당황하면 입에서 단내나도록 달달 위운 대사도 틀리더라고요. 그 순간은 공포예요. 자괴감이 들죠.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요. 관객들이 관중다고 박수 쳐주는데, 너무 미안하죠.”

해결책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할 뿐이다. 상대 배역의 대사를 본인도 녹음해놓은 음성을 틀어놓고 공연 두 시간여 전부터 연습하는 건 빼놓지 않는 일이다.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인터미션 때도 키워드 단어를 다시 숙지하고, 퀵체크 하더라도 그 전전년부터 (대사를) 외우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5년만 연기에 어색...연기자로 돌파구 찾고 싶어”

임창정은 “다니엘은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좋은 아빠”라고 했다. 작품을 하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됐단다. “오�히려 제가 좋은 아빠는 아니에요. 바빠서 아이들과 많이 못 놀아줬죠. 지금은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스킨십도 더 하려고 해요.”

연기 자체도 5년 만이다. 공백이 길어지며 연기 감이 떨어졌다고 최근 한 예능에서도 털어놨다. 1990년 영화 ‘남부군’으로 데뷔한 그는 “했던 연기(영화)가 아니라 두 배 정도 공백기가 있었던 무대로 오다보니 어색했다. 연습하는데 쑥스러웠다”며 “첫 공연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돌아봤다.

지금은 조금씩 감을 되찾고 있다며 “막공이 되면 본래 컨디션으로 돌아올 것 같다”고 웃었다. 관객과 마주하는 “커피롤은 늘 감동”이라고 했다. “오늘도 해냈구나” 생각



해요. ‘장정이 고생했어’라는 박수가 느껴지죠.”

활동안 연기를 원 건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해서였다. “영화의 경우 똑같은 역할만 들어오고, 새롭게 보여드릴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인상 깊은 단역, 조역부터 다시 하고 싶어요. ‘우와 저 사람이 임창정이야?’ 한 두 신이라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약역 등 해보지 않았던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연기자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죠.”

뮤지컬, 콘서트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임창정은 최근 데뷔한 걸그룹 ‘미미로즈’로 제작자로서도 본격 발을 댔다. 보이 그룹과 또다른 걸그룹, 솔로가수 등도 준비 중이다. “부지런하면 백년이 아닌, 삼백년의

가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후배 양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의무죠. 제 저작권을 다 팔아서 후배 양성을 위한 사업 자금으로 마련한 거죠. 등수보다는 열정이 일등이면 된다고 봐요. 한계까지 열심히 할 거예요.”

공연은 11월6일까지 이어진다.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진정성에서 나오는 힘이 있다”며 “정성화, 양준모, 임창정이 포인트다. 셋의 색깔이 모두 다른데, 여타 작품보다도 더 다르다”고 관람포인트를 짚었다.

“11회차 정도 했는데, 벌써 3분의1이 지났어요. 초반엔 한번 하면 쓰러질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제는 아껴가면서 해야죠. 아가워 죽겠어요.”

유빈·선예, 10년만 합동무대 눈물...“잘 살아줘 고마워”



그들 원더걸스의 원년멤버 유빈과 선예가 10년 만에 함께 무대에 올랐다. 지난 26일 방송된 MBN 예능물 ‘미스터리 듀엣’ 8회에서는 정성훈과 남경주, 김현철과

장재진, 유빈과 선예, 오반과 허각이 등장해 감동의 합동 무대를 펼쳤다.

이날 세 번째 오픈싱어로 등장한 유빈은 미스터리 싱어에 대해 “우리 멤버들? 설마, 그럼

MBN 예능 ‘미스터리 듀엣’ 방송

벌써 알았겠지”라고 추리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원더걸스 리더 선예가 나타나 놀라움을 안겼다.

두 사람은 ‘미스터리 듀엣’을 통해 그토록 바랐던 합동 무대가 성사됐음에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선예는 “무대에서 노래를 같이 한 게 너무 오랜만이다. 거의 10년 만”이라고 감격했고, “아무리 오랜만에 같이 해도, 무대에 서니 느껴지는 감정은 여전했다”며 울컥했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은 원더걸스의 메가 히트곡 ‘텔미’에 대해 “우리 모두 하고 싶었던 스타일의 곡이 아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에 추는 “데뷔 전에 처음으로 영상을 보고 따라한 춤이 노바디였다”며 즉석에서 노바디 춤을 보여줬고, 선예와 유빈은 ‘노바디’, ‘텔미’, ‘소향’까지 히트곡 메들리 댄스를 추며 화답했다. 유빈은 현재 가정을 이루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선예에게 “네가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되게 그리웠다. 함께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어 행복하다”며 또 다시 눈물을 흘렸다. 선예 역시 “잘 살아주고 있어서 고마워”라고 서로를 끌어안았다.

곽도원, “술상 얹고 후배배우 비하” 주장도

유튜브 ‘연예 뒤통령이진호’ 채널 영상 공개



배우 곽도원(49·곽병규)이 음주 운전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과거 그의 부정적 행적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있다.

지난 26일 연예기자 출신 유튜브 이진호 씨는 유튜브 ‘연예 뒤통령이진호’ 채널에 ‘배우 곽도원의 두 얼굴, 충격적인 술버릇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씨는 “곽도원이 이미지가 좋은 배우였다. ‘나 혼자 산다’에서 선한 모습으로 많이 나왔다”며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곽도원이 젠틀한 모습이었다. 개인적인 기억 속의 곽도원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과거에 같이 일했던 분들도 ‘곽도원 사실은 든든한 면이 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핀트가 나가는 그 부분이 항상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이어진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러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곽도원이 한 영화에서 후배 배우와 촬영에서 후배 연기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연기력 지적을 했다. 촬영 막바지 회식 자리에서도 연기 지적을 했지만 연기에 대한 지적보다는 비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했다.

그간 웃어 넘겼던 후배 배우의 표정이 잠시

일그러지자 그 표정을 본 곽도원이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술상을 얹었다고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곽도원은 후배 배우의 가족들의 번호를 알아내 새벽에 전화를 했으며 그 가족들은 곽도원의 전화로 공포에 떨어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곽도원의 매니저가 해당 배우에게 사과를 해 이 사건이 일단락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곽도원은 과거 성추행, 폭행 논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18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어났을 무렵 과거 성희롱 시비에 휘말렸고, 2020년엔 영화 ‘소방관’ 회식 중 관계자 폭행했다는 루머에 휘말렸다.

두 사건 모두 곽도원이 억울함을 표했고 알려진 설이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일단락됐었지만 이미지에 일부 타격을 입었다.

이 씨는 ‘소방관’과 관련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고”고 주장했다. 당시 광경당 감독이 적극적인 수습에 나서면서 불을 끄는 후문이다. 이 씨는 “광경당 감독이 자기의 작품이 흠집나는 걸 두고 보지 못했다. 사건 이후에 곽도원 씨가 그 불의를 일으키고 다시는 음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서 제작사에 전달했었다. 그래서 제작사 측은 다시 한번 곽도원을 믿고 촬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소방관’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개봉 여부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곽도원은 국내 OTT 티빙 오리지널 ‘벨런즈’를 차기작으로 확정했는데 이를 두고서도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5일 제주 서부 경찰서에서 곽도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곽도원은 같은 날 오전 5시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스포츠크리티) 차량을 몰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으로 향하다 적발됐다.

이동거리는 약 10km 가량이다. 음주 측정 결과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곽도원은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돼 문화체육관광부 공익광고 출연료 전액을 반납하게 됐다.

7인 7색 히어로들...‘진검승부’ 단체샷

다음달 5일 KBS 2TV 첫 방송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진검승부’가 주연 배우 7인의 모습이 담긴 단체 포스터를 27일 공개했다.

‘진검승부’는 부와 권력이 만든 성역, 그 안에 살고 있는 악의 무리들까지 시원하게 깨부수는 액션 수사극이다. 정보보다는 편법을, 정석보다는 짚수를, 성실함보다는 불랑함을 택한 검사가 이 사회를 쫓고 있는 부정부패한 권력자들을 처단한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독보적인 위용을 드러낸 ‘꼰통 검사’ 진정(도경수 분)을 중심으로 박진감 넘치는 쾌속 서사를 이끌어갈 신아라이(세희 분), 오도환(하준 분), 박재경(김상호 분), 고종도(이시인 분), 백은지(백보영 분), 이철기(연준석 분)의 모습이 생동감을 전하고 있다.

먼저, 도경수는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불량 검사’ 진정 역을 맡았다. 자신의 검찰청 공무원증을 자신감 있게 치켜든 채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서 ‘똥개’가 느껴진다.

중앙지검 형사 3부 선임 검사 신아라이는 깔끔하게 하나로 묶은 헤어스타일과 블랙 블라우스로 단정하면서도 격을 차린 검사 포스를 드러냈다. 한없이 위로 올라가고 싶은 ‘야망 검사’ 오도환은 매서운 눈빛으로 진정을 노려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앙지검 민원봉사실 실장 박재경은 트레이드마크인 후끈근한 운동복과 티셔츠를 입고 당혹스러운 듯 입을 다물지 못해 궁금증을 유발한다. 약점을 잡혀 진정에게 주인과 노비 관계로 얽히게 된 고종도 역시 무거운 장비를 내려놓은 채 힘겨워 해 무슨 사연인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오는 10월 5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